

# 연극 기반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기획과 경영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Theatre-Based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Arts Healing Programs

황소연<sup>1</sup>

Soyeon Hwang<sup>1</sup>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거버넌스 구조가 연극 기반 문화예술교육과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기획 및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략히 소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창의성과 미적 감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사회적 소통과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기획과 예술경영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본 연구는 먼저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발전 과정과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예술기획 및 예술경영의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역할을 재조명한다. 이어서 연극 기반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책 거버넌스 구조와 운영 체계를 분석하고, 연극치료와 교육연극을 포함한 국내외 연극 중심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치유 영역에서 예술기획과 예술경영의 역할이 확장되는 양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연극 기반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교육적 의의와 가치를 조망하고, 관련 분야의 정책적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나아가 향후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정책 거버넌스 연구와 실천 중심의 예술기획과 예술경영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문화예술교육, 예술치유, 연극치료, 교육연극, 예술경영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concise examination of how Korea's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ies and governance structures influence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theatre-based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arts healing programs. Culture and arts education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field that enhances individual creativity and aesthetic sensitivity while promoting social communication and integration. In this context, arts planning and arts management function as key elements in ensuring the sustainability and professionalism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ies in Korea and reexamines the concept and role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arts planning and arts management. It then analyzes the policy governance structure and operational system of theatre-based arts healing programs and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atre-based arts healing programs both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including drama

<sup>1</sup> Department of Cooperative Integrated Arts,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eoul, Korea [Instructor]  
e-mail: soyeonhwang84@gmail.com

Received(January 1, 2026), Review Result(1st: January 28, 2026), Accepted(March 13, 2026), Published(March 31, 2026)



© 2026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therapy and educational drama.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explores the expanding roles of arts planning and arts management within the fields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arts healing. The findings highlight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and value of theatre-based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arts healing programs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policy development of related fields. Furthermore, this study may serve as foundational material for future research on policy governance in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arts healing, as well as practice-oriented studies in arts planning and arts management.

Keyword : culture and arts education, arts healing, drama therapy, educational drama, arts management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에는 예술기획과 예술경영이라는 제도적·정책적 요소가 필수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20세기 이후 예술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보편화되면서 문화예술교육과 예술교육의 용어가 혼용되고, 교육 안의 예술(arts in education)을 근간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습득의 차원을 넘어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창의성과 소통의 가치 확산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화예술교육은 국악, 문학,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무용, 디자인,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포괄하며, 연령 및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적 경험은 개인의 미적체험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실현을 위해 프로그램 기획 역량과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거버넌스 구조가 연극 기반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기획 및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 연극 중심의 미적체험 학습을 통해 교육적·치료적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조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영국과 미국의 연극치료 및 교육연극 사례와 국내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연극을 활용한 맞춤형 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최적화 전략을 탐색하고 정책과 조직 운영, 참여자 개발을 통합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 방법 및 문제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에 기초하여 이론적 고찰과 사례 분석을 병행하고 단행본 3권, 원서 1권, 번역서 1권, 국내 학위논문 1편, 인터넷 홈페이지(사업 공모문) 1건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의 기획과 경영 관련 문헌을 검토한다. 아울러 실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사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기획 구조, 운영 주체, 정책적 지원 체계, 참여 대상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예술경영의 이론과 실재를 연결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문화

예술교육과 연극예술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 후 예술경영의 개념과 역사적 사례를 통해 조직적 기반을 고찰한다. 이어 교육 현장의 연극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여 기획과 경영의 실천 구조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특히 연극예술이 적용된 교육 현장의 조직과 환경을 고려하여 참여자 중심 프로그램 구성, 대상별 맞춤형 운영 방식,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 기획의 중요성을 도출한다. 또한 기획자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 및 환류 체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는 예술기획과 예술경영이 참여자 중심의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기획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구조적 의미를 밝히고,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영향과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통한 예술교육 기획 패러다임의 전환

국내에서 정립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의 기획과 경영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될 때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삶과 사회 속으로 확장하며 그 가치를 증대시킨다.

국내 문화예술교육과 예술조직의 목표는 문화예술과 교육의 결합으로 설정되었으며, 2000년 중반부터 예술교육의 기획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조직적인 기구가 설치되었다. 2000년 이전의 문화예술조직과 정책은 공연, 전시 등 장르별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당시에는 대규모 문화공간에서 제한적인 교육 프로그램만이 운영되었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수입 증대에 목적으로 한 강좌나 강습 위주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학교 예술교육은 교과목 중심의 지식 전달에 치우쳐 참여자 중심의 체험적 학습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3년 참여정부 주도로 문화예술교육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그해 7월 문화관광부(1998년 문화체육부에서 개편,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설)와 교육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발표하며 관련 부서를 설치하였으며, 2004년 11월에는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문화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와 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참여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되었고, 법적·제도적 기반과 조직 체계가 정비되면서 문화예술교육 기획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1].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약 60여 개의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140여 차례의 자문회의와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2],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능동적 참여와 창의적 교육 개발에 관한 관심이 본격화되었다. 이어 2005년에는 문화예술교육을 전담하는 산하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현재까지 학교와 사회를 연계하는 다양한 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06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제1차 유네스코 세계예술교육대회가 처음 개최되면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국내에서는 약 4년 후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미적체험을 기반으로 한 대상별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예술교육에서의 대상 세분화는 기업경영에서의 마케팅 전략인 STP, 즉 Segmentation (시장세분화), Targeting (목표시장 설정), Positioning (포지셔닝) 개념에 기반한다. 이를 토대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의 체험 수준, 교육적 요구, 지역적 특성, 장애 여부,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상 세분화 기반의 프로그램 설계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을 지닌다. 현대 사회에서는 미적체험을 핵심 요소로 삼아 활동 중심, 과정 중심, 협동 중심, 탐구 중심의 교육이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다 [3]. 교육 설계 과정에서는 참여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감성적 자극을 강화하고, 창조적 과정을 통해 내재적 동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극과 무용 등 동적 예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은 직접 창작하고 공연하는 경험을 통해 예술적 이해와 감상의 폭을 확장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를 위해 제3장에서 예술경영적 접근을 통해 연극 기반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기획 및 경영 구조 체계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2.2 문화예술교육 정책 거버넌스와 예술조직 내 기능적 역할

현대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기관 간 협력을 중시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거버넌스의 유형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구분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로즈(Rhodes)의 분류에 따르면 부처 간 협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공공과 민간 기관 간 협력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문화예술 허브 공간의 개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공간은 다양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적 기반이 취약했던 지역 또한 문화예술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융·복합 기반의 고부가가치 문화사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지닌다. 이처럼 정부, 민간,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참여자 중심의 체험적 예술교육이 강화될 때, 문화예술교육과 정책 거버넌스는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며 사회적·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조직 내에서 두 가지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는 독립적인 단위 프로그램의 역할이며, 둘째는 공연이나 전시 프로그램의 관객 개발을 위한 전략적 수단의 역할이다 [4]. 예술조직의 목표가 설정되면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동시에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첫째, 기획자가 공연이나 전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관객이 예술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은 남녀노소 누구나

예술에 대한 지식과 맥락을 탐구하며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접근 경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술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미적체험이 부족한 사람도 문화 콘텐츠와 온라인 플랫폼, 뉴미디어아트, 메타버스, OTT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관객층을 형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교육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문화산업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며, K-드라마, K-웹툰, K-컬처, K-트렌드, K-PoP 등 글로벌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는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예술 마케팅을 통해 잠재 고객을 교육 참가자로 전환할 수 있다. 셋째, 교육 참가 비용을 통해 예술조직의 수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넷째, 예술가에게 창작 외의 부수적 활동과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또한 창출하며 국가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는 지식 탐구와 예술 향유의 기능, 그리고 새로운 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관객 개발의 기능이 동시에 작동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참여자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있다. 각 프로그램은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고정된 형식에 머무르지 않는 예술의 유동적이고 아방가르드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교육과 예술이 융합된 프로그램이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예술조직과 교육 참여자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때 예술은 문화예술기획과 예술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 3. 연극 기반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예술경영적 접근

#### 3.1 참여자 중심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기획과 경영 체계

현대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이 교육과 치료의 경계를 넘나들며 혼합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연극예술은 국악, 문학, 무용, 음악, 미술 등 타 예술 장르와 융합과 통합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미국의 교육연극 전문가 리처드 코트니(Richard Courtney, 1927-1997)는 『놀이, 드라마, 사고Play, Drama, Thought』에서 교육연극의 본질이 놀이, 정신분석, 심리극, 사회학, 사회 인류학, 연극 등 다양한 학문적 요소가 통합된 학제적 기반 위에서 성립한다고 강조한다 [5]. 현대 문화예술교육 환경에서는 예술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예술적 감수성뿐만 아니라 정책 이해, 조직 운영, 예산 관리, 교육 설계 역량을 포괄하는 예술 기획과 예술경영의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예컨대 기획자가 연극예술 강사의 역할을 겸할 경우, 학습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놀이, 심리, 인문, 철학, 과학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고려

한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참여자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술조직 역시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와 참여 대상의 특성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총예산을 기준으로 시·도 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지원금을 배분받아 운영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교육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문화재단 등과 협력하여 참여자가 미적체험을 통해 인성, 창의성, 지성을 균형 있게 개발하도록 창의적 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정책 거버넌스 차원에서 운영되는 중앙 부처 간, 중앙·지역 간, 공공·민간 간의 다각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대상별 교육 기관의 의미를 보여준다. 아동·청소년은 대안학교, 아동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장애인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활동을 참여하며, 일반 시민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프로그램을 경험한다. 특수 대상의 경우 교정시설, 군부대, 하나원, 병원, 산업단지 등에서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러한 기관들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과 민간단체 성격의 교육사업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대상범위와 운영 체계가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체계적 구조 속에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기획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참여자가 교육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적체험을 필수 요건으로 설계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방향은 예술조직의 내부 환경과 지역사회 내 위치와 영향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직 내부에서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주요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프로그램 운영 인력은 기획 담당자와 참여자 개발 담당자로 구분하여 배치함으로써 프로그램 간 연계성과 참여자 개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더불어 참여자의 연령, 성별, 교육 수준, 학습 단계,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교육사업 종료 시에는 예산 집행과 결과 보고서 제출을 필수 절차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 예산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창의적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참여자의 수강료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행정 방식 또한 고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기획과 예술경영 관련 역량을 갖춘 인력은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다.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기획자는 프로그램의 설계자이자 관리자, 감독자, 행정가, 경영자로서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운영 과정에서 기획자는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의 행함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의 경험으로서의 예술(art as experience)교육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창의적 체험과 활동을 이끌고, 교육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탐구 기반 학습을 통해 성찰적 사고를 촉진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평가와 환류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인다. 이 과정에서는 미시적·거시적 관점에서 교육 목표의 달성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프로젝트 평가를 수행한다. 나아가 초기 단계에서 설정한 교육 목표와 학습 효과의 성취 수준을 바탕으로 전문 서적이나 교재를 출판·제작하고, 향유 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며 강사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예술교육 및 예술

치유 프로그램의 연계와 새로운 교육방법론 개발이 가능하다. 이러한 평가와 환류 체계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예술경영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문화예술교육이 점차 확산함에 따라 문화예술 산업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며, 참여자 중심의 능동적·자발적 미적체험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3.2 예술경영과 연극예술교육의 개념적 연계

일반적으로 경영의 개념은 근대 관리론의 창시자로 평가되는 체스터 버나드(Chester Barnard, 1886-1961)의 정의를 통해 그 의미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버나드는 경영을 조직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동시에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이 요구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예술 영역에서도 유효하며, 동시대적 맥락에서 예술의 의의를 고찰할 때 기획과 경영 간의 쌍방향적 교류는 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 진흥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를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16세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시대는 예술과 경영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초기 양상을 보여주는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연극예술 활동은 문화예술교육에서 필수적 요소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경영과 관리가 이미 당대에도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세 후기부터 바로크 시대에 걸쳐 확산한 테아트룸 문디(theatrum mundi), 즉 세상은 무대라는 사상은 1599년 셰익스피어의 활동 거점이었던 런던 글로브 극장 입구에 새겨진 문구인 모든 인간은 배우다(Totus mundus agit histrionem)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예술적 사유가 일상적 삶의 영역까지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며, 관객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공연을 관람하며 인생은 연극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현상은 일종의 미적체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극예술교육과 관련된 조직적 문화시설의 사례는 런던의 백조극장과 블랙프라이어즈 극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백조극장은 노천 형태의 대중극장으로 약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비교적 저렴한 입장료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관객이 공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반면 블랙프라이어즈 극장은 실내 홀 구조의 사설극장으로, 피트석과 개인 박스를 중심으로 한 관람 방식을 도입하여 고액의 입장료를 책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원화된 극장 운영 방식은 관객의 사회적·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관람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관객 개발과 자원 조성 전략의 초기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당시에는 예술이 경제 영역과 분리된 것으로 인식되던 시대적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삶의 연극화라는 사상은 공연 관람 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예술 소비와 참여로 연결되었다. 이는 현대 예술경영에서 논의되는 마케팅 논리와도 상통하며, 예술이 제도적 교육기관과 지역 문화기관으로 확장되는 토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전문 예술조직으로서의 기획 구조와 경영 방식을 갖추는 기반으로 작용하였으며, 예술과 경영의 결합은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서구 사회에서 예술 인식의 확장은 예술을 개별 장르로 구분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으며, 이는 교육적 관점에서 예술 개념을 정립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예술의 교육적 측면이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특히 히포크라테스의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은 예술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숙련된 능력과 지식의 축적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역량임을 강조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정립된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 예술교육의 핵심 가치로 계승되고 있다. 국내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사용하는 Arte (아르테)라는 용어 역시 라틴어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예술과 기술을 동시에 포괄하는 의미가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이 개념은 예술가를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예술작품을 창출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전문가로 전제하고,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 예술교육이 지향하는 교육 안의 예술을 실현하는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하며,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과 체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예술교육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극, 음악, 미술, 무용, 문학 등 장르별 예술교육의 틀을 넘어 언어, 역사, 지리, 사회, 과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과 연계된 통합예술교육의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기능 중심 교육과 체험 중심 교육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예술교육은 단순한 이해와 감상의 차원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삶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길러야 한다.

종합하면 연극을 단일한 예술 장르로 한정하여 창의성만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체계화된 교육정책과 통합 시스템에 기반한 교육과정이 구성될 때 예술교육의 영역은 확장되며, 그 사회적·교육적 가치를 더 충실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3.3 국내외 연극치료와 교육연극의 발전과 예술치유 프로그램 현황

연극치료는 연극이 지닌 치유적 원리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며, 그 목표는 치료에 있다. 반면 교육연극은 교육에 초점을 두고 연극을 교육적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연극치료와 구별된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모두 참여자의 경험과 학습을 핵심 요소로 삼는다는 공통점을 지니며, 실제 현장에서는 목적과 맥락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된다.

20세기 초 미국과 영국의 학교 교과 및 교실 활동에서는 드라마를 교육적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연극치료 이론이 정립되는 과정에는 교육연극의 실천적 성과가 중요한 토대로 작용한다. 피터 슬레이드(Peter Slade, 1910-)는 아동의 자발적인 연극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연극이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후 그는 1959년 논문 「사람 되기를 돕는 연극치료」에서 연극치료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연극과 치료를 교육의 맥락에서 연결한다 [6].

영국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놀이와 극적 활동으로 중심으로 한 교육과 치유 접근이 확산하고, 1977년 영국연극치료사협회(British Association of Dramatherapists, BADth)의 설립을 계기로 연극치료

는 전문 영역으로 제도화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연극, 심리치료, 놀이치료의 이론과 기법이 연극의 형식과 내용에 통합되며,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는 연극치료가 개인의 치유를 넘어 사회적·교육적 실천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의 연극치료 역시 교육, 심리, 의학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전문 학문으로 발전한다. 1970년 북미연극치료협회(North American Drama Therapy Association, NADTA)의 창립은 연극치료 정의와 목표, 치료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미국의 연극치료는 학교 교육 현장과 긴밀히 연계되며, 교육연극의 원리를 치료적 접근에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참여자의 학습과 정서적 변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치유와 문화예술교육을 연계한 기획 및 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심리적·정서적 치유와 사회성 회복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증진한다. 특히 2023년 이후 시행된 「마음치유, 봄처럼」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며 연극,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술 장르를 치료적·교육적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활용하며, 2025년부터는 문화로 치유 지원사업으로 개편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확대 및 운영되고 있다. 본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의 특성에 따라 Wee 클래스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 주간행사 연계 운영 등 최대 6개 협력시설과 치유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슈퍼바이저, 예술치료사, 예술가(3인 이내 구성), 행정실무자(각 1인 필수), 협력시설 담당자(시설별 1인 필수) 등 관련 인력들이 협업하여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7].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문화예술치유의 실행 체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문화예술치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연극치료는 영국과 미국의 다학문적 접근을 수용하면서도 국가 정책과 공공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연극치료와 교육연극이 예술기획 및 예술경영의 틀 안에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례는 연극을 활용한 문화예술치유 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전문 인력, 그리고 체계적인 기획 및 경영 구조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 4. 결론

본 연구는 현대 문화예술교육 체계에서 예술기획과 예술경영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중요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예술은 무형의 서비스 특성을 보이며, 특히 연극과 같은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체계적 기획과 조직적 경영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적체험은 물리적 결과물로 남지 않으므로 명확한 예술경영 개념과 사회적 소통 전략이 요구

된다. 예술경영의 핵심은 예술가, 교육 참여자, 그리고 교육 현장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획자는 미적체험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기획과 경영을 조율하는 구실을 한다. 문화예술교육 기관과 단체는 참여자의 욕구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해야 하며, STP 경영 전략과 연계된 체계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연극 기반 교육과 치유 프로그램의 기획은 행정 매뉴얼과 예산 확보, 전문 인력 양성과 연계되어야 하며, 참여자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국가 차원의 정책적 기반과 전문자격제도, 재교육 시스템은 예술교육 기획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 장치로 기능하며, 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기획과 경영은 지속적 연구와 학습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축적된 기획자의 전문 역량은 연극 기반 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넘어 예술경영 차원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현행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예술경영의 실제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을 예술기획과 예술경영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예술경영의 상호작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학술적·실천적 토대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MCT and KCTI, *2005 White paper on cultural policy* (Korean Edition),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2006.
- [2] H. S. Yong, "Study on effective governance model in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y," Ph.D. dissertation, Arts Management Division,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07. [Online]. Available: <https://www.riss.kr/link?id=T11016489>
- [3] M. S. Jeon, D. J. Kwak, W. J. Choi, Y. S. Jung, I. W. Nam, and SFAC, *Aesthetic experience and arts education* (Korean Edition), Eumstory Publishers, 2014.
- [4] H. S. Yong, *Arts management* (Korean Edition), Gimm-young Publishers, 2020.
- [5] R. J. Landy (H. W. Lee, Trans.), *Drama therapy: Concept, theories and practices* (Korean Edition), Ulyuck Publishing House, 2012.
- [6] R. J. Landy, *The Couch and the Stage: Integrating Words and Action in Psychotherapy*, Jason Aronson Press, 2008.
- [7] KACES, "2025 Healing through culture support program 'Mind Healing, Like Spring'," *arte.or.kr*,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70200](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70200) (accessed Oct. 1, 2025).